

오피니언

光日春秋

전용배



체육 및 스포츠분야에 종사하면서 평소 필자는 스포츠가 매력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력이 있음에도 좌절하는 경우는 다른 많은 영역에서는 흔하다. 세상이 꼭 실력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확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어떤 영역에서든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사파루림(邪派武林)'의 고수는 널려 있다. 그러나 적어도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다. 아무리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를 폄하해도, 실력이 있으면 벤치에 머물지 않는다. 관중석의 팬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경기력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는 오게 되어 있다."

풍만 강조한다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민들 눈에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누가 나오든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선출해야 하는데, 후보 난립과 정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유권자를 탓해야 할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 둘 수밖에. 혹자는 "선거란 결국 최선이 아니라 차선,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면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차악(次惡)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장에 간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 아무리 오십보백보라지만 그래도 나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유권

자의 역할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선출직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동네 앞마당이라도 쓸어본 경험, 즉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본 경험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남을 위해 삶의 일부분을 희생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문성은 비례대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 말고, 또 어떤 요소가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해답은 대한민국 헌법에 제대로 녹아 있다.

기준에서 10개 중 6~7개 정도의 영역에서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면 다시 짝여워도 무방하다. 그러나 5개 미만이라면 심판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에서 같이 근무 중인 외국인 교수들이 가끔 의아해 하곤 한다. 미국의 경우 기득권층과 비즈니스맨들은 대부분 공화당 쪽이고 흑인들 및 지식인층은 대부분 민주당 쪽인데 반해 한국은 자기 정체성과 상관없이 투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필자가 보기엔 그것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속속도의 문제이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즉각 직전에 "아직도 수천 명의 사회학자 중에서 공화당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회학자가 공화당원이 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권자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후보의 정책보다 이미지에 의존하여 투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선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헌법에 내재된 가치를 떠올리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누구를 찍을 것인가

집권여당이나 기존 시·도지사를 심판해야 할 목적이란, 그 답이 또는 기존 시·도지사 집권 시, 이전 집권세력이나 시·도지사 때와 비교하여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개인 및 집단의 인권이 성장했는지, 경제발전 지표가 우수하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는지, 이념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는지, 복지가 나아졌는지, 교육 및 의료서비스가 진일보했는지,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었는지, 과거보다 행복했는지 등, 대한민국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가치를 준거의 틀로 적용한다면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정권이든 또는 시·도지사든 완벽할 수는 없다. 항상 공과 과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단지 이전에 비해 이러한

시설

인구 부풀린 '도시계획' 부작용만 키운다

광주시와 전남도내 각 시·군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해 도시기반시설과 택지개발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광주시와 광양·순천·여수시 등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조사 결과, "모든 지자체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인구를 실제인구보다 최대 64%까지 초과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199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목표인구를 220만명으로 설정해 기존 59km, 8km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각각 77km, 9km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 말 현재 광주시의 인구는 144만5828명에 불과한 데 비해 주거지역은 73km, 상업지역은 9km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거 및 상업지역의 확대는 과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아파트 미분양과 빈집, 상가 미임대 속출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시·군의 '목표인구 과대 설정'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지난 1999년과 1998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양시와 순천시는 2016년 목표인구를 각각 43만명, 50만명으로 설정했으나 2008년 말 인구는 각각 14만1000명, 26만9000명에 머물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이처럼 '목표인구'에 매달리는 것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인구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를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복지에 환경 등 다양한 도시 수요를 지표에 포함하고 상징적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는 소탐대실의 우를 키우고, 정부 역시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이자부담 눈덩이' 서민 금융지원 확대해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광주·전남 서민들은 1인당 평균 230만 원을 빌려 연간이자로 94만8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7%)의 6배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는 지경인 반면 대부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대부업체가 올린 순이익은 3107억원에 달했다. 서민들이 힘겨운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바둑의 사건과 경기실적 등을 보고 응원하는 선수를 정하면 F1경기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24명의 드라이버들 중 주목되는 4명의 선수가 있으니 기억하길 바란다. F1대회에서 7번의 챔피언에 등극한 메르세데스팀의 F1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제1금융권과 똑같은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한 신용대출이 확대될리 만무하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역시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돈 빌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상담창구를 찾은 서민들 가운데 고작 2% 정도만 돈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대출이 막혀 있다. 서민에게 자녀를 돕기 위한 학자금 대출도 이자 갂면 혜택이 사실상 없다. 연 이자율이 5.7%에 이르는 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이자가 붙는 복리가까지 적용된다. 서민들에게 대한 정부 보증을 늘려 낮은 금리의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물꼬를 터 놓아야 한다. 저리의 생활자금과 전세자금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서민정책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부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기대에

의료 칼럼

허정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여자 81세, 남자 78세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15년 이내 인구 15% 이상이 65세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임상의로 수준은 간 이식, 성형수술, 심장수술, 암 수술 등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1977년 의료보험의 시작으로 1988년 전 국민의료보험시대로 진입하면서 각종 질환의 치료가 쉬워지고, 특히 선진국에 비해 5분의 1에서 10분의

들이 나오고 있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구 환경이 열악해 노벨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질병 예방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질병의 발생 전 적극적인 예방 및 검진의 활동으로 실제 진료비의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사망의 주 원인인 각종 암과 심혈관질환 등은 40대 이후 1~2년에 1회 정도의 검진으로 대부분

무병장수의 지름길

1 정도 원가 이하의 진료비로 국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외국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의료비의 싼 가격에 놀라고 높은 의료수준에 감탄해 한다. 4.50년 전 의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가 배우고 도입했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의료수준을 뛰어넘는 정도까지 발전해 국민건강과 세계 최고수준의 평균 수명 연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환자 진료에 전력해온 의료인들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불합리한 제약법, 각종 행정적인 규제 등으로 오히려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의료 산업화 등으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의학은 크게 치료의학과 예방의학과 기초의학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 치료 의학은 세계 수준에 와 있다. 아쉽게도 기초의학의 연구는 장기적으로 많은 재원의 투자를 요하고 물질적 인적 재원이 필요한데 일부 세계적 수준의 논문

본 예방 가능하고 초기에 발견돼 치료 예후가 매우 좋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은 거의 무료이며, 실질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만 제대로 하더라도 질병의 조기발견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검진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급증으로 각종질환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약속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2년 전부터 영유아건강검진도 시행되면서 검진의 시대가 다가왔다. 그러나 한편 아쉬운 점이 있다. 하루가 멀다고 발산하는 의료환경에서 정부는 무조건 권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의 의료보험을 밀고 나가고 있으며, 건강검진 또한 원가미달 정도의 수가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 의료계 종사자들이 모든 걱정·불안을 떨쳐버리고 질병예방 및 검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과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에덴병원장)

건강에 좋고 농촌도 살리는 '떡 소비' 많이 했으면

요즘 우리 떡은 소포장으로 간편하게 만들어져 걸어도 먹어도 맛도 있고 간편 포장으로 나와 인기가 높다. 그런데 우리 전통 떡이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니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영양학계를 비롯한 유자와 대추, 견과류를 넣어 만든 두릅떡기떡은 천연 플라보놀이 포도 주스보다 5배나 많고, 포도주보다

는 2배 많고, 송편과 가래떡에도 포도 주스보다 2~3배가량 많이 들어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이것을 연구결과 수치로 직접 방송까지 해주었다. 떡을 많이 먹으면 개인의 건강에도 좋고, 요즘 쌀값이 떨어져 힘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도 되니 국민들이 떡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해주었으면 좋겠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기고

황별이



지극진간(知剛眞看)이라는 말이 있다. 즉,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참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다. 몇 달전 국민들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 선수를 보며 환호했다. 피겨 스케이팅을 볼 때 김연아 선수가 출전한다는 것만 알고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과 경기방식과 득점포인트를 아는 사람이 느끼는 감동은 다를 것이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영암에서 열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경

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같은 특징 말이다. 나만의 응원 선수를 정한다. F1 그랑프리에는 한국 팀이나 선수가 없다. 하지만 전 세계 24명에 불과한 F1 드라이버들의 사건과 경기실적 등을 보고 응원하는 선수를 정하면 F1경기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24명의 드라이버들 중 주목되는 4명의 선수가 있으니 기억하길 바란다. F1대회에서 7번의 챔피언에 등극한 메르세데스팀의 F1

F1경기, 아는 만큼 즐긴다

황제 미하엘 슈마허, 2009년 F1챔피언으로 외모까지 출중한 맥라렌팀의 젠슨 버튼, 2008년 최연소 F1챔피언에 올랐고 유일한 흑인 드라이버인 맥라렌팀의 루이스 해밀턴, 2010년 스페인 그랑프리 리와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해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레드불팀의 마크 웨버 등 4명의 드라이버를 주목하면 경기를 더욱 흥미 있게 관람할 수 있다. 머신과 코스 공합에 관심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F1서킷은 직선과 코너링 구간으로 나뉜다. 한국 그랑프리도 열리는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의 경우 총 길이는 5.6km이며 F1 서킷으로는 드물게 주향 방향이 시계반대방향이다. 직선트랙은 1.2km로 세계 최장이며 최고시속을 320km이상까지 뽐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머신 일수록 구간과 상관없이 꾸준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직선구간에서 강점을 보이는 맥라렌팀 머신이 영암서킷에서 일일치 이변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이밖에 코리아 그랑프리만의 이벤트를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회기간동안 전남도청 앞이나 해남 등 경주장 인근에 캠핑촌이 운영되고 락 스티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온 가족이 F1 관전포인트를 숙지해 경기를 재미있게 관람하고 있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 (F1 조직위원회 사무관)

無等鼓

고대 로마의 정복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미리 승부를 결정 지은 다음에 전투에 임했다고 한다. 그는 일부러 그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수의 정예군단을 움직였다. 많은 병력보다는 정예군단이 신속하게 이동해 고지를 점령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고대의 지상전은 높은 곳을 먼저 차지해 낮은 곳의 적을 상대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었다.

후보가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무시하고, 전·현직 시장을 '구태'로 몰며 '물갈이'를 외치다가 좌절했다.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북풍'과 '노풍'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 의식을 자극하는 여당과, "무기한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야당의 대결이다. 선거가 북풍 프레임에 갇히면 여당이 이기고, 안보공세에 놀란 야당 지지자들이 일어서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모든 것은 민심이 달렸다. 불가 6일 남았다. /김주정 정치부장 jnews@kwangju.co.kr

선거 프레임



역사평론가 시모노 나나미는 저서 '로마인 이야기'에서 '카이 사르가 언젠가 이길 곳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질 곳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을 구사했다.'라고 적고 있다. 미리 짜인 '전투 구도(Frame)'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얘기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구도를 잘 잡아 야 이긴다. 선거구도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력은 70% 라고 한다. 나머지 30%는 공약과 후보 자질, 운이 작용할 때가 많다. 역대 대통령선거가 그 예다. 1987년 노태우 후보는 '4차 필승'의 고지를 선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